

전국 곳곳 코로나19 집단감염 ... 신천지 많은 광주도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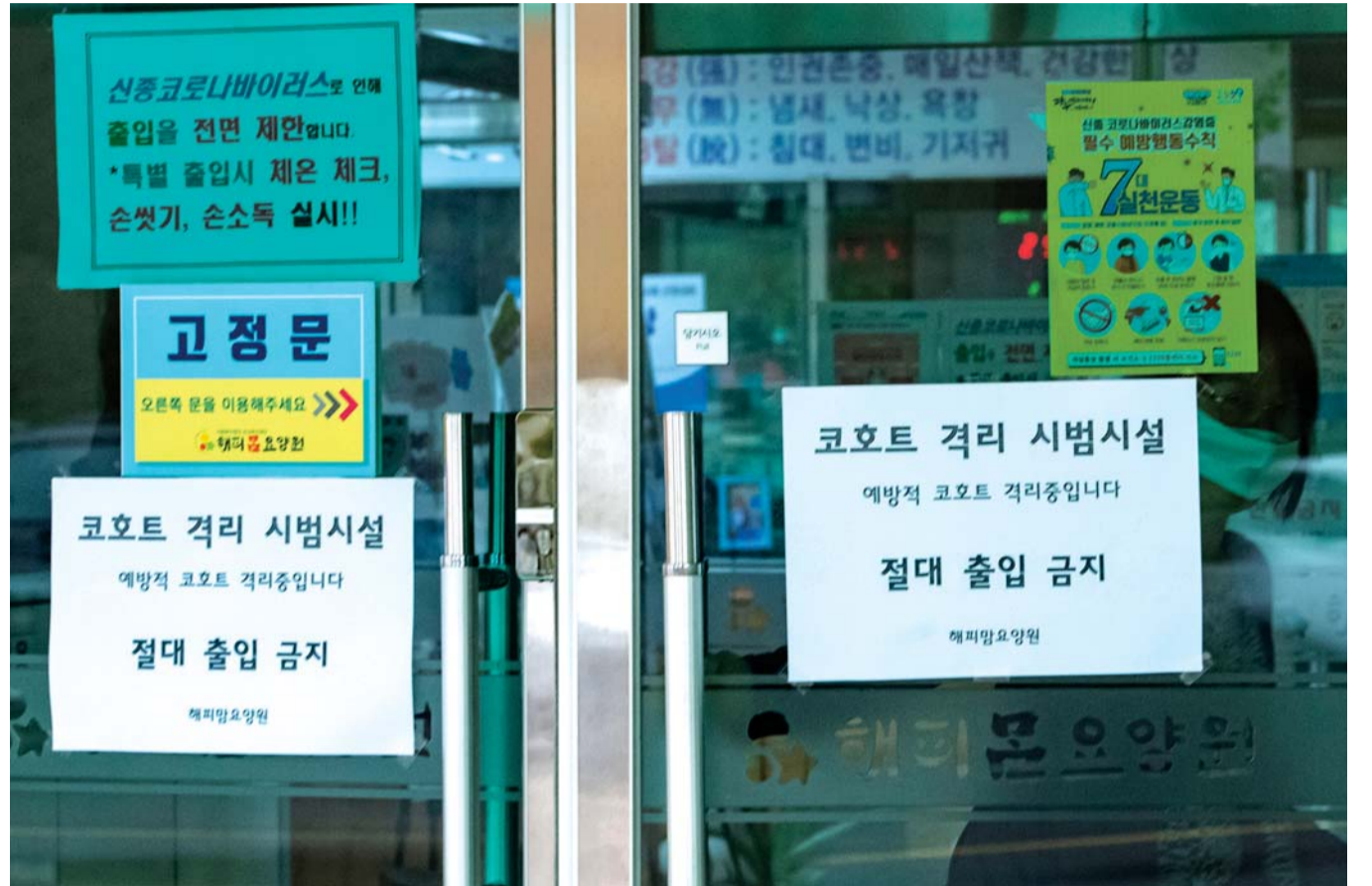
신천지 교육센터 밀집한 광주역 인근 청년행복주택 주복 콜센터도 64개에 8000여명 근무... '남의 지역 일'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신천지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광주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2·6·7·14·16면>
광주는 전국에서 인구 대비 신천지 교인 수가 가장 많은 데다, 최근 서울과 대구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공공임대 주택과 콜센터 등도 광주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에서 신천지 교육센터 등이 밀집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역 인근에 광주도 시공사가 관리하는 행복주택(청년) 공공 아파트가 들어선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대구시립 임대아파트인 한마음아파트에서 신천지 교인 94명(총 거주민 142명)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곳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로, 35세 이하 미혼 여성 근로자만 입주할 수 있으며 월세도 5만원 대로 매우 저렴하다.
청년 신도가 많은 신천지 특성상 정식 교인이 되면 집을 나와 신분을 숨기고 집 단으로 모여 사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저렴한 월세 등이 강점인 공공임대 아파트에 집중 거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청년 임대 아파트 사업을 집중 추진해온 광주시 산하 광주도시공사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는 10개 단지 7526세대에 이르는 데, 특히 광주역 인근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는 전체 700세대 중 574세대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세대다. 이 아파트는 주거전용 기준 20㎡, 36㎡, 44㎡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월 임대료는 9만4000원~22만9300원으로 저렴하다.
이 아파트는 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교인 수만 2만명이 넘는 신천지 오지동 교회와 신천지의 교인 포섭 활동의 주 무대로 꼽히는 전남대와 인접해 있다.
또한 인근에 신천지 교육 센터도 밀집돼 있다는 점에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거주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6~17일 광주 첫 신천지 확진자인 A씨(30)와 함께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또 다른 확진자 B(30)씨가 같은 달 18일 방문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파트 내 편의점이 일시 폐쇄되기도 했다. 특히 A·B씨가 신천지 교육 센터를 교육·관리하는 전도사급 이상 간부로 전해짐에 따라 B씨가 해당 아파트를 방문

한 배경을 놓고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공사는 매일 이 아파트 직원들을 보내 아파트 주변과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집중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집단감염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아파트 내에 신천지 교인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사생활 침해 등 때문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면서 "매일 아파트 내부와 외부에 대한 방역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광주시가 확보한 신천지 명단과 이 아파트 입주자 명단을 대조하는 작업을 해서라도 신속히 신천지 집단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중효 광주시행정부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집단 거주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임용기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의회 광주상담소장은 "지금도 신천지의 사생활 등을 얘기할 때가 아니며, 어떤 방식이든 아파트 내에 있는 신천지 교인을 찾아내 집단 생활을 분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광주는 64개 콜센터에 8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전국 대표 콜센터 집적지역이다. 광주시는 이날 콜센터 현장을 방문해 실태 점검에 나서서 한편 업체에는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예방적 코호트 격리 코호트 격리 시범시설을 막기 위해 광주시가 노인요양 시설과 노숙인 재활 시설에 대해 9일부터 14일 간 시범적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10일 오후 코호트 격리 시범시설로 지정된 광주 동구 해피맘요양원 입구에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선관위, 이석형 고발 ... 광산갑 경선결과 바뀌나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 ... 민주당 재심위·최고위 열어 논의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함평군수 후보 이상익 선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이석형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재심위원회(12일)와 최고위원회(13일)를 잇달아 열고 광산갑 불법 선거운동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경선 결과가 바뀔 것인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석형 예비후보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모두 8명을 광주

시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권리당원 등 선거구민에게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석형 예비후보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민주당 광산갑 경선에서 이용빈 예비후보를 제치고 승리한 바 있다. 하지

만 이용빈 예비후보 측은 "불법 선거운동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민주당 재심위원회는 "선관위의 검찰 고발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재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예비후보가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재심위와 최고위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그냥 덮어줄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 경선에서는 서동용 예비후보가 권향업 예비후보를 따돌리고 승리했다. 또 함평군수 보궐선거 경선에서는 이상의 예비후보가 김성찬·정문호 예비후보를 제치고 본선에 진출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 4월 총선에 호남권 이슈로 부상

광주·전남 15개 대학에 전북권 6개 대학도 유치 지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가 4월 총선에서 호남권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광주·전남만이 아니라 전북권의 대학총장들까지 방사광 가속기 유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유치가 한층 탄력도 붙게 됐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4월 부지 선정 공모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남과 함께 충북, 경기, 강원, 인천, 경북 등이 방사광 가속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전남도는 10일 오후 김우영 전북대학 총장협의회장(전주교육대 총장), 김혁중 광주·전남대학총장협의회장(광주대 총장), 정병석 전남대 총장, 김기선 GIST 총장,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 대학 총장 방사광가속기 유치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 자리에는 김우영 전북대학 총장협의회장(전주교육대 총장)이 참석했으며, 군산대·원광대·전북대·전주교대·전주대·호원대 등 전북권 6개 대학이 지지 입장을 밝혔다.
기존 광주·전남권 15개 대학에 전북권 6개 대학까지 호남권 21개 대학 전체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전남 유치에 대한 명분을 얻는 것은 물론 4월 총선에서 호남권의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총장은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한 공동연구 등 다양한 연계 협력으로 호남권 대학 간 동반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의 호남권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대형연구시설이 대전, 포항, 경주, 부산 등 충청영남지역에 편중돼 있고, 호남권의 R&D사업 비중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3.02%에 불과해 연구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와 연계해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유치, 호남권 대학들과도 협력하며 지역 연구개발(R&D) 능력 제고, 기술 고도화, 기초과학 진흥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방사광가속기는 화학, 생물, 전기, 의학 등 기초연구는 물론이고 반도체, 바이오 신약, 2차전지, ESS, 미래 청정에너지, 신소재 개발 등 모든 과학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국가 대형연구시설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명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화순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자연속애 화순팜 www.hwasunfarm.go.kr
화순군